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해 출판·배포 금지와 소송 승계인인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과 광주교도소 습격은 물론 ‘헬기사격과 계엄군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삭제를 명한 62개 표현과 1심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사건’ 내용을 심리했다.

이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 표현

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안에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사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일어난 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계엄군의 진술에 비춰보면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전두환이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시민군의 공격행위는 있었지만 수감된 간첩 등의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원고인 5·18기념재단 측과 조영대 신부는 “재판이 4년이나 걸린 것이 안타깝지만



14일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 선고 직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영대 신부, 김정호 변호사(왼쪽부터)가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민사 판결이 5·18 진상 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재판 결과가 5월의 진실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바로 불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사상 최대

3606억으로 2014년의 16배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8만4107건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4만5877건에 비해 83.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국 피해액은 3606억 원으로 지난 2014년 202억여원의 16배로 뛰었다.

2014~2021년 8년 간 총 피해액은 6504억7400만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에서도 피해가 꾸준히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3194건, 2020년 3227건, 2021년 2235건으로 해마다 2000~3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또한 2019년 2260건, 2020년 3699건, 2021년 2722건 등 피해

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계좌 지급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면 은행이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계좌 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원 기자 hyunki@kwangju.co.kr

한빛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46번이나 멈췄다

전국 150건 정치 사고의 30% 민주당 김희재 의원 현황 분석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00 여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의원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전체 150건의 사고 중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한빛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17번 멈추는 사고가 났다. 부

산시 가장군 고리원전 2호기(2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다.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엔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1983년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도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희재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자전거 훔친 현직경찰관 붙잡혀

새벽을 틈타 40여만원 짜리 자전거를 훔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 A씨(56)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거리에서 4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당시 자전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휴게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양제철 협력사 근로자 기계설비 청소하다 추락 사망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 설비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내 협력사 공장에서 근로자 A(54)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 등을 생산한 뒤 배출되는 슬러지(찌꺼기)를 가공·재활용하는 공장이다.

공장 직원인 A씨는 당시 슬러지와 시멘트를 갈

때기처럼 한 데 모으는 ‘호퍼’ 설비안에 들어가 내벽에 붙은 찌꺼기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장치 장착 여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포스코 측은 “해당 공장은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기타공급사’로서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포스코에는 법적 책임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수익 - 380만 ▶ 연 수익 - 4,560만 ▶ 매가 - 6억7천 ▶ 용자 - 3억6천 <p>중심사업,유흥가능,전용 10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 rowspan="4">광주</td> <td>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td> </tr> <tr> <td>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td> </tr> <tr> <td>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td> </tr> <tr> <td rowspan="3">전남</td>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td> </tr> <tr> <td>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td> </tr> <tr> <td></td> <td>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td> </tr> <tr> <td></td> <td>담양군 무정면 (주택)▶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전남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전남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010-6670-9800		062-382-5500													